

‘東國李相國集’을 통해 본 고려중기 退食齋 園囿와 조경문화

신상섭 ·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Toesikje Garden and Landscape Culture in the Middle Goryeo Dynasty as Viewed through 'Dongkukesangkukjip'

Shin, Sang-Sup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In reviewing ‘Dongkukesangkukjip(東國李相國集)’ a selection of prose and poetry describing Toesikje, the house of Kee Heung-soo, a military official in the middle Goryeo Dynasty, the outcome of the study intended to infer garden scenery and landscape culture managed and possessed by high society at that time is outlined as follows. First, Kee Heung-soo, the owner of the house and Lee Kyu-bo, the author of Toesikje Palryeng(退食齋八詠) are thought to be those who first designated the 8 scenic points and recreated the concept of public enjoyment of <Paryeong or Palgyeong culture> into the concept of personal enjoyment in Korea. Second,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Toesikje garden is presumed to be in the Gee-Seung-Jeon-Gyul(introduction-development-turn-conclusion) style in which a fairyland is built to enjoy a free and peaceful life, while anticipating coming days and pursuing creation-prosperity-transcendence-return. Third, the viewpoint structure of the scenery Wongyeong(Toesikje), Donggyeong(Youngcheondong), Cheonggyeong(Cheokseojung), Myunggyeong(Dokrakwon), Jingyeong(Yeonmukdang), Sigyeong(Yeoneuiji), Yunggyeong(Nokgunheon), and Hyungyeong(Daehoseok) contains a symbolic universal vision of Palchejigyeongsek(the 8 scenic points) which incorporates Samwon(heaven, earth and water) and Obangwi(orientations), and the harmonization principle of the scenic points where the building and garden are harmonized. Fourth, Je, Dang, and Heon, Jeong(齋, 堂, 軒, 亭) are introduced to the garden, and Geehwayeecho, Jingeumgeesoo, Gasan and Goeseok(stone) were used in a variety of ways. Fifth, it wa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Shinseongyeong and enjoyment of Yoosanggoksu events, with the study and seeking of perfect knowledge and discipline, wandering and rest led to a sublime appreciation of aesthetic beauty and divine glory. Sixth, a miniature garden was built to enjoy the view from above, together with the view in the distance, and a culture of secluded living, along with scenery expressing the heart’s desire for Utopia was induced.

Key Words : Toesikje Garden, Fairyland, Toesikje Palryeng, Palchejigyeongsek(the 8 scenic points)

국문초록

고려 중기 무신인 기홍수의 저택 퇴식재 경관을 읊은 시문 10여편이 수록된 ‘동국이상국집’을 분석, 고찰하여 당시 상류계층이 향유했던 원유 및 조경 문화적 특징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식재’의家主 기홍수와 ‘퇴식재팔영’의 제영자 이규보는 8개의 景物(八詠)을 명명하여 <팔영 또는 팔경문화>의 대중적 향유개념을 사적 향유개념으로 재생산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로 평가된다. 둘째, 퇴식재 원유의 공간구성 체계는 仙境之所를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Korea, Phone : +82-63-290-1494, E-mail : orchid@woosuk.ac.kr

구축하여 逍遙遊를 즐기고, 미래를 회원하며 생성-풍요-초월-회귀로 나아가는 기승전결의 경관짜임을 추적할 수 있다. 셋째, 元景(퇴식재), 洞景(영천동), 淸景(척서정), 明景(독락원), 眞景(연목당), 始景(연의지), 靈景(녹균헌), 玄景(대호석)의 경물구성 체계는 八采之景色의 상징적 우주관이 함축되어 있으며, 건물(棟)과 뜰(庭)이 교차하며 음양의 접합과 같은 相和 원리가 추출된다. 넷째, 원유에는 齋, 堂, 軒, 亭이 도입되었고, 기화이목과 진금기수, 假山과 괴석 등 水木石 및 동물 요소가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퇴식재 원유에서는 神仙之境을 경영하며 유상곡수연회를 즐기고, 수심양성을 사유하며 소요유를 즐기는 ‘遊와 息, 그리고 樂’의 풍류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여섯째, 원유에는 俯視경관을 즐길 수 있는 축경형 정원을 조성하였고, 遠景을 차경하며, 隱流之所를 경영함은 물론 이상향을 추구하는 心象景觀의 향유 양상이 표출된다.

주제어 : 퇴식재 원유, 仙境之所, 퇴식재팔영, 八采之景色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고려시대 민가조경은 그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기록에 의존해 형상을 추출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조경공간의 규모나 구성에 대한 상황묘사는 상세하지 않고, 사료 또한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형 사료는 거의 없고, 고려사, 선화봉사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에서 묘사된 서술적 상황으로 당시의 주거문화 속에 깃든 자연관 및 조경문화의 향유 양상을 단편적이거나 살펴볼 수밖에 없다(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113). 본 연구의 대상인 퇴식재와 관련하여 이규보(李奎報: 1168(의종22년)~1241(고종28년))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기상서퇴식재팔영’ 등 10여 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기상서퇴식재팔영’은 작가 이규보가 기홍수(奇洪壽: 1148(의종2년)~1209(희종5년))의 저택인 ‘퇴식재’에 초대를 받아 기홍수의 요청으로 제정한 시인데, 이 詩語에 등장하는 家主와 제영자가 남긴 경관언어는 당시 상류계층의 민가정원 면모를 추적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려시대에 사대부들의 자연관 및 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팔경문화는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생명력 넘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거정(1420~1488)은 <동인시화>에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이다. 이런 까닭에 그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김영모, 2007)고 하였다. 예로부터 자연을 대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우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도 하나의 소우주로 생각하여 자기가 기거하는 곳의 특이한 景物이나 物象 그리고 인간 삶의 형태와 연결(최기수, 2004)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발상으로서, 주거공간 퇴식재를 대상으로 설정된 八詠 또한 기홍수에게는 물론 빈번히 교우했던 이규보의 가치관과도 연계된 또 다른 의미경관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퇴식

재팔영>과 같은 관련 시문에 표현된 경관언어의 분석을 통해 관련 인물들의 자연관은 물론 퇴식재의 경물구성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象外之象 또는 境外之境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상적 관점과 상징성 같은 意境의 해석 또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특정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조경문화와 관련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퇴식재’와 관련해서는 윤국병(1978), 정동오(1986), 윤영환(1987), 민경현(1991), 박연호(2004),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주남철(2009) 등의 저술서에서 정원 소재를 중심으로 제시한 단편적인 기술 내용이 전부이다. 한편, 국문학적 관점에서 안장리(2002)가 연구한 “한국의 팔경문화”를 통하여 퇴식재팔영 서문에 대한 번역 성과가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려시대 중기에 조영된 저택 퇴식재를 대상으로 이규보가 읊은 ‘기상서퇴식재팔영’의 시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시문을 참고하여 당시 상류계층이 경영한 주거공간의 입지성은 물론 조경문화사적으로 원유에 도입된 조경 소재와 경관짜임, 향유문화 등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고려 중기 상류계층이 경영한 園圃의 경관짜임과 향유 문화의 특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특정 주제와 관련한 詩語의 어휘소들이 園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은 물론 작정 의도와 관련한 의미경관 및 사상 등의 추적이 가능한 연계 고리로 작용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고을시편에 소개된 ‘기상서퇴식재팔영’ 등 퇴식재 관련 시문에 근거하여 당대 권력의 최고위층으로 활약한 기홍수의 저택을 대상으로 원유의 조영적 향유문화를 추적코자 한다.

연구 분석에 이용된 자료로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근거하여 한국고전번역원 총서 <국역 동국이상국집, 1978~1981년>을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기홍수의 저택 퇴식재(개경 남서

쪽 기리에 위치)가 어떻게 조성되어 경영되었다고 하는 그림이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퇴식재 인근에 살면서 빈번히 교우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대 사람 이규보의 시문 10여편이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어 퇴식재 원유에 대한 배후사상과 경관짜임, 향유문화 등 조영성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퇴식재 관련 圖書畫 등 관련 자료가 ‘동국이상국집’ 이외에 현재까지 더 이상 발굴되지 않은 점, 그리고 ‘퇴식재팔영’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작성관 도출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며, 북한 지역(개성) 입지에 따른 현지조사 불가 등의 사유로 경관 및 공간구조에 대한 추적이 문헌에 의존하여 수행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연구내용 및 방법은 첫째, 기홍수와 이규보 등 관련 인물 및 ‘기상서퇴식재팔영’ 등 10여 편의 시문이 수록된 <동국이상국집>을 조망하고, 둘째, 퇴식재 관련 내용이 기술된 여타 시문의 전개 상황을 파악하며, 셋째, ‘기상서퇴식재팔영’ 서문과 시, 그리고 퇴식재 관련 시문에 표현된 경관 어휘소 및 상징성 등을 고찰하여, 넷째, 퇴식재 원유의 조영적 특수성과 향유문화를 도출코자 하였다. 이때 방법론으로는 ‘기상서퇴식재팔영’을 중심으로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퇴식재 관련 10여 편의 시문에서 추출되는 조경문화와 경관 어휘소의 추출 그리고 장정룡(2002)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八采之景色(元景, 始景, 玄景, 靈景, 眞景, 明景, 洞景, 淸景) 요소를 각 경물에 대입시켜 상징성 등의 연계성을 추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으로 채택된 ‘원유’에 대한 용어는 퇴식재가 비록 사가 원림이나 齋·堂·軒·亭 등 문화경관요소와 동식물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園囿적 속성이 강하게 표출됨은 물론 ‘퇴식재팔영’ 서문에 기술된 <이미 봉래, 영주의 원유(동산)에 다(既能園囿蓬濠)>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원유’를 채택하였다.

II. 퇴식재 원유와 관련한 경관주제

1. 이규보와 기홍수

본 연구의 대상인 퇴식재의 집 주인 기홍수와 ‘퇴식재팔영’ 등 10여 편의 관련 시문을 남긴 이규보의 생애에 대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홍수는 고려 중기 무신정권 때 문무를 겸비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명종24년(1194년)에 추밀원부사, 1197년에 참지정사판병부사를 거쳐, 신종 2년(1199년)에 문하시랑평장사, 1201년에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1203년 문하시랑 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가 되었다. 1199년에 <大觀殿無逸篇>을 썼으며, 1204년에 최충헌 등과 더불어 신종의 선위를 논의하였고 희종 때에 중용되었으나, 최충헌에게 사양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음악과 글씨를 즐겼던 인물이다(http://people.aks.

ac.kr).

이규보는 고려 중기의 대표적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알려졌는데,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으며 科擧之文을 하찮게 여기고 姜左七賢의 시회에 드나들었다. 23세 때 진사에 급제했으나 개성 천마산에 들어가 백운거사를 자처하고 莊子사상에 심취했고, 26세 때 <東明王篇>, <開元天寶詠史詩> 등을 지었다. 1207년 權補直翰林으로 발탁되었고 1219년 右司諫이 되었다. 1220년 禮部郎中起居注知制誥, 翰林侍講學士를 거쳐 1230년 判衛尉寺事, 1232년 判秘書省事寶文閣學士慶成府右詹事知制誥, 1237년 保門下侍郎平章事 등을 지냈다.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외적의 침입에 단호한 항거정신을 가졌으며, 고통을 겪는 농민들의 삶에 주목하였다. 그의 문학은 자유분방하고 웅장한 것이 특징인데, 당시 이인로 계열의 문인들이 형식미에 치중하는 것에 반해 氣骨·意格을 강조하고 新奇와 創意를 높이 샀다. <동국이상국집>, <백운소설>, <국선생전> 등의 저서와 다수의 시문을 남겼다(http://enc.daum.net). 특히, 중국 송나라로 부터 八景詩畫가 유입되어 유행하는 데, 주목되는 초기의 인물인 이규보는 소상팔경시와 한국팔경시를 동시에 남긴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건주팔경 등 6편의 팔경시 그리고 ‘기상서퇴식재팔영’과 ‘차해문장로수다사팔영’ 등 2편의 한국팔경시를 남기고 있어 고려시대 가장 많은 팔경시를 쓴 인물이며, 팔경시의 세계를 인간 세계로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영물시와 같은 연장체로 읊어 ‘八’의 대표성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안장리, 2002)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동국이상국집’과 기홍수의 퇴식재

<동국이상국집>은 53권 13책(전집 41권, 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집은 이규보가 아들 涵의 요청으로 편찬을 정하고 이름도 직접 붙였다. 후집은 아들 함이 전집에서 빠진 유작들을 수집한 것으로, 뒤에 전집과 합하여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이규보가 병석에 있을 때 집권자인 崔怡가 간행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고, 1251년 晉州分司大臧都監에서 고종의 칙명으로 간행했다. 일본에서 들여와 다시 간행했다는 李灝의 기술로 보아 오늘날 전하는 판본은 18세기 영·정조 연간의 복각본으로 여겨진다(http://enc.daum.net/dic100).

‘기상서퇴식재팔영’은 기상서의 저택인 퇴식재를 대상으로 읊은 시이다. 상서 기홍수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 최충헌과 왕의 선위를 논의할 정도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며, 말년에 퇴식재를 지어 원유를 가꾸면서 진금기수를 키우며 호사스러운 취미생활을 즐겼던 인물이다.

특히,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퇴식재 관련 시문으로는 ‘奇尙書의 林塘에서 옛사람의 운을 차하다’(1권), 奇樞密이 정승된 것을 찬하다, ‘기상서 댁에서 미인과 앵무에 대하여 짓다’, ‘앵무새가 손님이 온다는 말을 잘하므로 공이 또 짓게 하다’(3권), ‘기상서 집에서 성난 원숭이를 보고 짓다’(9권), ‘기상서의 퇴식

표 1.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기홍수의 퇴식재 관련 시문

기홍수 및 퇴식재 관련 시문	출처	작가
기상서의 林塘에서 옛사람의 운을 차하다	동국이상국집 1권	이규보
기상서퇴식재팔영	동국이상국집 2권	이규보
기주밀이 정승된 것을 찬하다	동국이상국집 3권	이규보
기상서 택에서 미인과 앵무(鸚鵡)에 대하여 짓다	동국이상국집 3권	이규보
앵무새가 손님이 온다는 말을 잘하므로 공이 또 짓게 하다	동국이상국집 3권	이규보
기상서 집에서 성난 원승이를 보고 짓다	동국이상국집 9권	이규보
기상서의 퇴식재에서 蘇東坡의 운에 따라 절구 한 수를 짓다	동국이상국집 11권	이규보
기상서의 水亭에서 술을 마실 적에 기생이 우연히 왔는데	동국이상국집 11권	이규보
기평장의 挽詞를 翰林院에서 지어 올리다	동국이상국집 13권	이규보
기평장의 禊宴에 초청받은 것을 사례하는 계	동국이상국집 27권	이규보
고 奇相國의 별장을 지나면서(지금은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	동국이상국집 후1권	이규보

재에서 소동파의 운에 따라 절구 한 수를 짓다'(11권), '기상서의 水亭에서 술을 마실 적에 기생이 우연히 왔는데'(11권), '奇平章의 禊宴에 초청받은 것을 사례하는 계'(27권) 등이 다수 있음을 볼 때 이규보와 기홍수는 동시대 인물로 사상과 가치관의 교감은 물론 작정관을 공유하는 등 원유문화에 대한 동질감이 돈독했으리라 추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기홍수의 권유로 이규보가 퇴식재팔영을 제영하였고, 극수연회에 초청을 받아 유락을 즐겼음은 물론 기홍수가 사망한 후 기홍수의 만사(기평장의 挽詞를 한림원에서 지어 올리다)를 지었음이 동국이상국집 13권 및 27권에 수록되어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기홍수는 52세 때(1199년) 정2품 門下侍郎平章事가 되었는데, 이 때 이규보가 <기평장의 禊宴에 초청받은 것을 사례하는 시>를 남기고 있어, 이규보는 적어도 32세 이전부터 10여년 이상 기홍수와 교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퇴식재 원유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퇴식재 원유는 이규보의 시 '故 奇相國의 별장을 지나면서(동국이상국후집 제1권)'를 통해 판단해 볼 때 기홍수 死後 얼마되지 않아 타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시문에 "공이 살아생전에 연못가에 茅榭를 짓고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즐겼는데, 지금은 화려한 집으로 바뀌었네"라는 내용에 근거한다면 퇴식재 원유는 기홍수 사후로부터 이규보의 생존시기인 1210년에서 1241년 사이에 이미 타인의 소유가 되어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변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Ⅲ. 결과 및 고찰

1. 퇴식재 자리잡기와 원유의 조성

고려시대 민가원림은 최충헌이나 차약송, 기홍수 등 무신정권시기에 권문귀족들의 저택에 경쟁적으로 조성되어 기화이초와 진금기수가 애용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되는데, 퇴식재의 경

우 동식물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園囿적 속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집경시 형식으로 이루어진 '퇴식재팔영' 중 서문에 대한 해석 결과(표 2) 퇴식재 원유는 首府인 개경에서 남쪽으로 2리쯤 떨어진 용수산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면서 家主(기홍수)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특히, "玉京의 남녘 요지", "땅이 서로 龍首巔에 접했으니 옥색 기운이 위로 떠오르고, 붉은 햇빛이 아래로 내리 쏘도다"라는 문맥 등으로 보아 비룡형의 풍수적 명치 임을 유추하게 된다.

퇴식재 원유에는 풍류와 가무를 즐길 수 있는 臺와 館을 도입하였고, 봉래와 영주를 갖춘 신선풍의 원유를 가꾸었으며, 모란꽃, 창포꽃, 팔진미 등으로 꾸며진 賞花宴과 유상곡수연을 베풀어 門客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禮樂之處를 경영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작정 재료와 관련하여 진금기수와 기화이목이 가꾸어진 원유에는 연꽃, 버들, 단 배나무, 남색 자두나무, 기암괴석 등의 정원수와 괴석 뿐 아니라 비단 날개 새, 누런 부리, 푸른 털 새, 옥지 등의 관상조와 관련한 용어가 등장한다. 한편, <고려사 열전>에는 中書省에서 車若松(?~1204)이 기홍수에게 물기를 "공작이 잘 있는가?라고 하니 기홍수가 답하기를 생선을 먹이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죽었다고 하므로 인하여 모란 기르는 기술을 물으니(중략)"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기홍수는 그의 원림에 진금기수를 키우며 화초를 가꾸는 취미에 몰두했음을 유추하게 된다(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117). 특히, 18세기 완상용 비둘기와 앵무새사육을 기록한 발합경(鵝鸚經)과 녹앵무경(綠鸚鵡經: 이서구 저)이란 저술이 발굴(정민, 2007: 221)되기도 하였는데, 이보다 5세기나 앞선 시기 기홍수의 저택에 관상조류에 대한 玩物 취미가 대단했음을 엿볼 수 있다.

경관에 대한 인식으로 퇴식재 주변 용수산 등의 자연경관과 퇴식재, 영천동, 척서정, 독락원, 연복당, 연의지, 녹균헌, 대호석 등 8가지 문화경관에 대한 實景美를 향유하였고, 봉래와 영주를 갖춘 가산을 두어 신선경을 구축하고 의경미를 완상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연의지에서 유상곡수놀이를 즐기며

표 2. ‘퇴식재팔영’ 서문에 표현된 경관상과 향유문화

퇴식재 팔영 서문	자연 및 문화 경관상	향유 문화
<p>玉京의 남녘 요지요 綺里의 서쪽 변두리라, 물품의 화려한 종류가 다 모였고 천지의 한 문호를 열었다. 땅이 서로 龍首巔에 접했으니 옥색 기운이 위로 떠오르고, 하늘이 바로 순미(鷓尾 남방의 별) 경계를 나섰으니 붉은 햇빛이 아래로 내리쬐었다. 이야말로 造化兒로서도 이르지 못하는 곳이거나 仁智한 이가 아니라면 그 누가 여기를 차지할 수 있느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경 남서쪽 남향만이 풍수적 명당처(龍首巔에 접한 飛龍形) · 환경적, 경제적 지속성을 고려한 福居地 자리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적 자리잡기 · 용수령 풍수경관 차경 향유
<p>옛날에는 풀 우거진 길이고 이끼 낀 뜰이었는데, 지금에 와선 노래하는 臺이고 춤추는 館이로세. 靈泉이 항상 솟아나 조그마한 티끌도 섞이지 않은지라, 얼룩 기둥 사이로 힘차게 흐르고 푸른 바위 밑으로 새이 떨어지니 넘실넘실 출렁이는 물결은 쪽이 아니건만 푸르고 냉랭하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아니어도 잘 울리누나. 이미 蓬萊·瀛洲의 원유(동산)에다 또 巢父·許由의 의관을 갖추었도다. 두어 그루 서늘한 대나무는 풍우의 하늘을 연상케 하고, 한 조각 떨어진 꽃은 신선의 경계를 드러내도다. 세 송이 모란꽃이요, 아홉 송이 창포꽃이라, 이에 수레와 일산이 문을 메우고 술과 안주가 소반에 가득하여, 구슬 향아리의 九醞酒를 따르고 옥 도마의 八珍味를 차려 내는데, 문하에게 지체함이 없도록 훈계함은 鄭司農의 문객을 좋아함이고, 자리가 항상 가득함을 일컬음은 孔大夫의 내빈을 기뻐함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臺와 館을 조성하였고, 靈泉이 솟아나는 원유이며, 봉래산과 영주산을 갖춘 신선풍의 풍류정원 구축 · 은일과 은둔을 위한 처소 · 賞花(모란꽃, 창포꽃, 구운주, 팔진미) · 門客과의 풍류적 교류처 및 禮樂之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歌臺舞館 · 신선풍의 園囿 · 神仙境의 풍류 · 삼신산 선경세계의 향유
<p>맑은 날씨가 포근히 비추고 좋은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면, 푸른 소나무에 기대어 두건을 짓고 흐르는 물에 둘러앉아 술잔을 띄우면서, 蘭亭의 봄 修禊를 그리워하고 河朔의 피서하던 술잔을 상상하리. 謝氏의 詩篇과 韓氏의 斧鉞은 주인이 바로 舍狐 재상이고, 孔子의 사상과 周公의 인정은 빈객이 모두 昌黎 선비이다. 새 연꽃이 물에 솟아오르고 늘어진 버들이 난간에 닿으면 붉은 비단 날개 새들이 玉池에 떴다 잠졌다 하고, 누런 부리 푸른 털 새들이 금 우리에게 지저귀도다. 眞定의 단 배나무를 옮겨오고 房陵의 남색 오얏나무를 심은지라, 맞이하는 듯 취한 듯 뺨은 듯 기는 듯한 나무들은 杜牧의 동산에 무리를 지었고, 가는 듯 달리는 듯 움직이는 듯 엮드린 듯한 들들은 韋章의 들판에 줄을 나란히 해, 마치 藏春塢 속으로 영접 받아 들어가고 自雨亭 앞에 노는 듯 하여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정수계 유상곡수원 · 피서할 수 있는 풍류처(후한시대 劉松이 하사에서 삼복 무렵 袁紹의 자제와 주야로 술을 마시며 피서했다는 고사에 비유) · 진금기수 기화이목이 가꾸어진 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山水流와 心流가 이루어진 풍류처 · 곡수지에서 유상곡수하며 음풍농월하는 遊興賞景
<p>1백 근의 활을 당기니 강하도다 猛夫의 씩씩한 팔 힘ियो, 3천 글자의 붓을 휘두르니 아름답다 才子들의 화려한 문장일세. 빈 누각에 가을이 먼저 찾아들고 깊은 숲에 바람 소리가 절로 들려오면 놀다란 용마루를 우러러 혼백을 가다듬고, 푸른 우물을 내려다보며 심신을 맑히는데 구름머리에 옥 같은 얼굴의 여인들은 봄꽃과 고음을 다루고, 끈계 울음소리와 방불한 거문고 줄을 통길 때는 맑은 날의 우박 소리로 떠오른다. 인생은 즐겁게 지낼 것이거늘 이 아름다운 경치에 마시지 않고 무엇하랴. 나는 듣건대, 太白의 竹溪는 헛되어 태평시대의 숨은 늙은이가 되어 버렸고, 裴公의 水榭는 잠깐 만년의 한가한 거처였을 뿐이라, 어찌 이 名敎의 장소에 또 逍遙의 즐거움이 있는 것만하랴. 공께서 退食함으로부터 호사자들이 따라 노는데 나는 다행히 좋은 이웃에 접해 여러 번 맑은 모임을 더럽혔으니, 오가는 들보의 제비는 비록 큰 짐의 그늘을 의지하지만, 바다 새는 슬퍼하며, 한갓 큰 잔치의 음식만 허비하는 격이라, 한번 붓을 잡고 글을 쓰려 하다가도 너무나 이롭난 동산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다. 오, 그러나 신기한 꽃과 이상한 풀들이 나의 마음을 곱게 그리고, 맑은 달과 맑은 바람이 나의 눈을 시원히 씻어주니, 사물도 사람을 이처럼 후대 하거든 내가 여기에 시를 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경치와 詩會를 즐기는 유흥상경(遊와 息 그리고 樂) · 기화이초, 광풍제월 등을 통한 인성의 도야, 자연과 교감을 통한 격물치지의 거점 · 유가적 가치 반영 · 현실로 부터 퇴식과 소요유의 세계에 다다른 노장적 선경세계를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유하고 은일하며 遊와 息의 향유 · 진금기수와 기화이목의 완상 · 격물치지하며 修己로 나아가는 寫意的 경관 향유
<p>만약 滕王閣 서문에 落霞의 한 구절이 없었거나, 謝公에게 池塘春草의 구절이 없었더라면, 푸른 산이 교계를 끊으려는 의논을 퍼뜨리고, 꽃다운 나무가 비웃는 얼굴을 나타낼 테라. 부질없이 한편의 시를 읊어 공손히 八詠을 올리나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뛰어난 경구(낙하, 지당춘초)에 빗댄 퇴식재의 아름다운 여덟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神仙之境 · 遠景과 近景의 의미경관 향유

음풍농월하는 遊景을 향유하고 진금기수와 기화이목을 완상하며, 원근의 仰俯 경관을 차경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제영자 이규보와 작정자 기홍수는 퇴식재라고 하는 사유공간 중심 경물을 거점으로 팔영을 명명하였는데, 시문의 세계를 대중적 향유개념에서 사적 향유개념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대입시키고 있다. 한편, 자연계의 현상과 생태적 원리를 윤리적 덕목과 연계시키는 물론 인간사회의 갈등 관계나 비유를 통하여 팔경문화의 성격을 다변화 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취락을 즐기며 인성의 도야를 염두에 두고 자연과 교감을 통한 유가적 가치를 원유공간속에 투영함은 물론 장자의 소요유를 즐기며 선경의 이상세계에 다다른 도가적 樂土 세계를 스토리 보드(story board) 형식으로 구축코자 하였음을 유추하게 된다.

한편, 이규보는 중국의 등양각이 왕발의 서문이 있어 유명한 것처럼 자신의 팔경시가 퇴식재를 유명하게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춤으로서 은연중에 文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안장리, 2002; 62).

그러나 제영시의 대부분은 중국의 시문이나 고사를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당시 상류 계층들의 가치관이나 학문관, 시문의 제영 등에는 선진 문화와 학문세계의 모방 그리고 의미경관 시어의 대입 등이 빈번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노재현 등(2009)은 ‘비해당사십팔영’ 소재 및 주제가 되는 식물이 그 이후 관련 원에서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일종의 식물에 관한 尙古性으로 典故가 되는 꽃이나 수목과 관련 있는 인물, 古事의 중심이 되는 선인에 대한 윤리적 흠모와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

표 3. 고려시대 팔영의 표제어 경물 특성 비교

구분	제영자	표제어	형식
퇴식재팔영	이규보(1168~1241)	退食齋/靈泉洞/滌暑亭/獨樂園/燕默堂/鍾澗池/綠筠軒/大湖石	칠언율시
수다사팔영	이규보(1168~1241)	柏軒/竹閣/石井/荷池/盆池/松徑/南澗/西臺	칠언율시
강릉팔경	김극기(1150~1204)	綠筠樓/寒松亭/鏡浦臺/岫山鐘/安神溪/佛華樓/文珠堂/堅造園	오언율시
울주팔경	鄭誦·李穀(1298~1351)	太和樓/藏春塢/平遠閣/望海臺/開雲浦/隱月峰/白蓮巖/碧波亭	무산일단운
영해십이영	安魯生(1357~1360년생)	騰雲山/望日峰/西泣嶺/南眠岬/燕脂溪/丑山島/掛仙樓/奉松亭/觀魚臺/梵興寺/含恨洞/貞信坊	무산일단운
봉산십이영	李穡(1328~1396)	鳳凰臺/白鶴巖/觀音殿/藏經閣/羅漢洞/居士菴/兩翼峰/神龍潭/百尺楸/五里松/靈泉/水洞	오언고시

한 바 있듯이 이와 같은 문화현상은 고려시대에도 팽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퇴식재팔영에서 언급된 이러한 관점은 표 2와 같이 ① 요 임금 때 산에 들어가 숨어 산 巢父·許由의 고사, ② 후한 때의 經學者 鄭衆과 鄭玄을 비유, ③ 후한 때의 太中大夫였던 孔融의 인물됨, ④ 왕희지의 회계산 蘭亭 봄 修禊, ⑤ 후한 말기 劉松이 하삭에서 삼복 무렵이면 항상 袁紹의 자제와 피서한 고사, ⑥ 위나라 眞定의 꿀과 같이 단 배나무, ⑦ 호북성 定山에 있는 朱仲의 집에 보기드른 기물인 남색 오얏, ⑧ 당나라 때 문인 杜牧의 晚晴賦에서 차운, ⑨ 수나라 때 奇章郡公에 봉해진 牛弘의 기암괴석 수집 취미, ⑩ 송나라 때 刁約이 벼슬을 사직하고 潤州에 '장춘오'를 꾸민 고사, ⑪ 송나라 蘇軾이 지은 喜雨亭, ⑫ 당나라 李白이 술친구들을 '竹溪六逸'로 이름한 고사, ⑬ 당나라 재상 裴度가 물가에 세운 綠野堂, ⑭ 莊子의 海鳥 비유, ⑮ 아주 뛰어난게 잘된 警句를 지칭한 당나라 王勃의 滕王閣序, ⑯ 남조 송 때의 謝靈運을 가리킨 池塘春草의 구절, ⑰ 玉이 나는 호북성과 강서성의 명산 형산과 여산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매우 다채롭게 비유되고 있다.

한편, '퇴식재팔영'에서 추출된 소표제의 주요 경물은 齋, 洞, 亭, 園, 堂, 池, 軒, 石 등 각기 다른 유형의 여덟 개 원유시설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이규보의 또 다른 한국팔경시 '수다사팔영'의 구성과도 유사한 양상으로 보인다. 즉, 이규보의 '차혜문장로'¹⁾수다사팔영은 절을 주제로 제영한 고려시대 최초, 유일의 팔경시인데, 소표제를 보면 사찰의 주요 구성요소인 대웅전이나 전각, 불상 또는 탑 등은 언급되지 않은 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간, 누각, 우물, 연못, 오솔길, 계류, 누대 등 조경요소 중심의 묘사에 주력하고 있다.

즉, 이규보의 제영시는 고려시대 제영된 강릉팔경, 울주팔경, 영해십이영, 봉산십이영 등 읍치팔경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문화경관 중심의 표제어 구성임은 물론 齋, 亭, 園, 堂, 池, 軒 그리고 川, 石 등과 같이 園내에 도입된 경물 위주의 경관 짜임으로 제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퇴식재 원유의 조경기법 및 경관구조

표 4는 칠언율시로 지어진 '퇴식재팔영' 각 경에 대한 詩語 및 경관 어휘소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팔영'의 명명과 관

련하여 서문에 "이 퇴식재 만은 나를 시켜 지은 이름이고, 나머지는 다 공이 표방한 것이다"라고 하여 주제는 이규보 자신이 설정하였고, 소표제는 모두 집 주인 기흥수가 명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퇴식재의 정원 명칭으로는 林泉, 園, 園圃, 林塘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園은菓를 심는 곳'이며, '圃는 채소를 심는 곳'으로, 그리고 '圃는 금수를 키우는 곳'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식재의 경우 園+圃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퇴식재 정원의 관련 용어를 '園圃'로 채용하였다. 원유와 관련하여 '단씨조전기'에는 노을왕이 즉위하면서 나라동산인 圃를 만들어 짐승을 키웠다는 약 3,900년 전의 기록이 있고, 맹자의 藤文公下 9장(<http://osj1952.com.ne.kr>)에 園圃汚池沛澤多而禽獸至(동산과 못과 진펄인 땅이 많아서 새와 짐승들이 또 다가오게 되고)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와 짐승이 어우러진 동산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식재 팔영의 경관짜임 기법으로는 1영과 2영에서는 신선경의 세계를 구축하여 소요유와 도가적 풍류를 즐기기 위한 神仙之境의 향유를 피력하였고, 3영과 4영에서는 더위를 식히는 피서처의 경영과 明園으로 불리어진 독락원에서의 유유자적함을 읊고 있다. 5영과 6영에서는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은일처소의 경영과 함께 미래 회원사상이 깊게 배어 있고, 7영과 8영에서는 유가적 자연관에 기반을 둔 격물치지는 물론 원유체험의 행위와 흥취를 통하여 경물을 은유하며 자연으로 회귀하는 삶의 여정을 의미경관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원유 속에서 遊와 息을 즐기며, 풍류로 나아가 선경의 이상세계로 나아가는 기승전결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과 같은 정황임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규보의 또 다른 제영시 '수다사팔영'에서 軒과 閣으로 이상향의 세계를 구축하여 井과 池, 그리고 徑에서 이상향을 향유하며, 澗과 臺에서 경물을 은유하는 서장, 중장, 종장의 경관 짜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원유의 도입시설로는 퇴식재, 척서정, 연복당, 녹근헌 등의 齋, 堂, 軒, 亭이 요처에 자리 잡았고, 조경소재로 石寶, 井, 泉, 榭(돌의자), 曲池, 大湖石, 假山 등의 무기소재와 竹, 萬樹 등 기화이목과 채색오리, 공작, 원숭이, 鴛鴦 등의 진금기수가 유기소재로 등장함으로써 水木石과 동식물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영환(2009)은 고려시대 석가산의 시원을 밝히기 위한 연

표 4. <퇴식재팔영> 제영사에서 추출되는 경관 어휘소 및 자연관

소표제	제영시	명명자	경관 어휘소	경물	관련 사상
퇴식재 (退食齋)	<이 퇴식재만은 나를 시켜 지은 이름이고 나머지는 다 공이 표방한 것이다> 너무 임천에 집착하면 나라 일에 소홀하고(酷着林泉妨廟算) 오래 문서에 얽매이면 몸의 원기를 손상하는데(久纏簿領損天和) 오직 공계선 따로 풍류의 자리를 점거했어라(惟公別占風流地) 조정에서 물러나면 때때로 술을 신고 찾아오시네(朝退時時載酒過)	이규보	林泉, 風流地, 退食, 酒	元景	소요유, 風流之所
영천동 (靈泉洞)	신령한 물줄기 깊은 돌구멍을 타고 내려와(靈派來從石竇深) 한 가닥 떨어지는 물 구슬이 부수어지듯(一條落井碎珠琳) 샘을 사랑하는 참된 취미 어찌 함부로 말하랴(愛泉眞趣那輕說) 나머지 맑음을 빌어 다시 마음을 씻네(賭得餘清更洗心)	기흥수	靈派, 石竇, 井, 碎珠琳, 泉, 洗心	洞景	도가적 신선세계, 안분지족
척서정 (絳暑亭)	처마 옆 시원한 대나무엔 푸른 그늘이 길고(傍簷涼竹綠陰稠) 자리 밑 찬 샘물엔 서늘한 기운 떠오르네(繞壑寒泉爽氣浮) 삼복뒤에도 늘 여기에만 오면(每到三庚金伏日) 정자의 맑고 서늘함이 가을과 같네(此亭清冷恰如秋)	기흥수	涼竹, 綠陰, 寒泉, 亭, 清冷	清景	풍류처, 피서처
독락원 (獨樂園)	단 하나인 샘물을 이웃 불려 마시게 하고(一泉寒水呼隣吸) 탑에 가득한 맑은 바람도 손님들과 함께 하면서(滿榻清風共客分) 고요한 속에 홀로 즐기는 이 동산만은(惟有名園靜中樂) 아예 남들에게 쉽사리 알리지 않네(不曾容易使人聞)	기흥수	一泉寒水, 榻, 清風, 名園	明景	은일, 수심양성 교감처
연묵당 (燕默堂)	텅 빈 마루가 산에 비취 환한데(一堂虛白映山明) 안식을 기대고 명상에 들어 세속 정을 씻누나(隱几冥觀滌世情) 골짜기의 새 울음들 어찌 고요함 깨뜨리랴(谷鳥那能啼破寂) 마음이 공하면 만물이 본래 소리가 없다네(心空萬物本無聲)	기흥수	映山, 隱逸, 谷鳥, 聲	眞景	遠景(산) 차경, 은일 처소
연의지 (漣漪池)	푸른 물은 무엇 하리 굽은 못에 가득 차나(碧水無端滿曲池) 새 연꽃 두어 송이 잔물결에 일렁이네(新荷數朵漾漣漪) 부디 공계선 강호의 경치를 그리워 마시고(憑公莫憶江湖景) 원앙새 자유로이 놀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看取鴛鴦得意時)	기흥수	碧水, 曲池(玉池), 新荷, 漣漪, 江湖景, 鴛鴦, 看取	始景	靉靆(流觴曲水), 미래 희원사상
녹균軒 (綠筠軒)	온갖 나무들이 앞으로 다 시들기 마련이라(萬樹前頭似一般) 겨울이 다 되도록 홀로 추위 견디를 누가 알라(誰知歲暮獨凌寒) 부디 공계선 부지런히 복돋고 길러서(請公用意勤封植) 꽃을 보는 눈으로는 보지 마시기를(莫作花前舊眼看)	기흥수	綠筠, 萬樹, 封植, 花, 眼看	靈景	격물치지 (유가적 자연관)
대호석 (大湖石)	벼슬자리 거쳐 온지 사십 년이라(揚歷駕行四十年) 때로는 맑은 꿈이 구름에도 얽혔으리(有時清夢繞雲煙) 이제부턴 푸른 산을 생각지 마오(從今莫起青山想) 하늘이 형산 여산을 눈앞에 내려 보냈으니(天造荆蘆落眼前)	기흥수	大湖石, 清夢, 雲煙, 青山, 縮景, 落景	玄景	縮景園 俯景, 불로장생 신선경

구의 일환으로 퇴식재를 민간정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삼신산과 괴석의 포치상태를 기술하였으며, 제 8영의 소표제어인 대호석은 태호석의 오기로 판단한바 있다. 또한 괴석들이 여러 형태로 줄지어 배열된 것으로 미루어 퇴식재는 치석을 위주로 한 석가산 조성 기법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한편, 퇴식재에 도입된 식물요소로는 소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자두나무, 배나무, 모란, 창포, 연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식물들은 윤영환(1985)이 제시한 고려시대 애용된 14종(버드나무, 소나무, 자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대나무, 측백나무, 단풍나무, 오동나무, 벽오동, 뽕나무, 앵두나무, 매화, 모란)의 식물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方池 형태가 아닌 曲池 형태의 연의 지 연못이 조성되었고, 원림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송나라와의 교역물품에 기화이목과 진금기수(배나무, 자두나무, 모란, 원앙, 공작, 원숭이 등) 등 다채로운 소재가 유입되어 작정소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무를 즐길 수 있는 臺와 館의 도입, 봉래·영주의 선산, 서늘함을 주는 대나무의 기능식재, 상화연을 즐길 수 있는 세 송이 모란꽃과 아홉 송이 창

포꽃, 푸른 바위 밑 靈泉과 소나무, 풍류처인 유상곡수거, 연못에 도입한 연꽃, 난간 가까이에 심어 운치를 즐길 수 있는 버드나무, 희귀한 색상의 새와 우리, 희귀한 배나무 그리고 특이한 색의 열매를 맺는 자두나무 등 奇花異草·異木의 식재, 기암괴석의 치석, 누각에서 부감되는 푸른 우물, 池塘의 春草, 曲池와 석가산, 앞산(青山)의 借景 등 다양한 조경소재 및 取景 기법이 작용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조경소재와 경관처리 기법 등을 추적해 보면 퇴식재 원유는 俯視를 즐길 수 있는 축경형 정원 의장으로 대호석을 주요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청산의 仰視, 그리고 은유적인 심상경관의 玩賞, 인체의 오감을 자극하는 풍류처로서의 면모가 발견된다. 한편, 내면적으로 감지되는 자연관 및 사상적 관점은 유가적 자연관과 老莊的 觀念의 선경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안분지족하는 가운데 소요유와 풍류를 즐기는 의경미의 향유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즉, 원유시설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팔경의 경영과 함께 노래하는 臺와 춤추는 館, 청명한 날 소나무 숲 아래서 유상곡수연회, 거문고를 튕기며 노니는 풍류와 泉石에서 소요유를 즐기는 유락, 淸

遊會 및 숲속 바람소리 등 淸風霽月の 유흥상경, 팔진미와 취락을 즐기는 주연회, 자연에서 체득하는 격물치지와 수심양성, 神仙之境의 향유 등 다양한 원유문화가 추출된다(표 4 참조).

한편, 박연호(2004)가 추적한 바와 같이 집경 시 '퇴식재팔영'에서 선택된 경물들과 그것들이 환기하는 공간구성 체계는 靜中動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의 절묘한 공간짜임으로 엮어 짐을 알 수 있다. 즉, 영천동에서 샘은 마음을 씻는 매개로 설정되고 있으며, 녹헌균에서는 대나무의 절개를 이야기한다는 점, 그리고 독락원과 연목당은 고요히 명상을 취하며 은둔하는 가운데 자연을 완상하고 심신을 수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원림의 수심양성적 기능을 이념적으로 담아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척서정과 연의지 그리고 대호석은 유락을 향유하는 풍류 처이자 유가적 이념이 표출되는 은일적 수양처가 되며, 불로장생하는 선경처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퇴식재의 8가지 경물들은 휴식과 수양, 풍류 그리고 은일과 은둔의 공간이라는 靜과 動의 이중성을 교차하여 퇴식하는 中庸之處로 의미 경관화 하고 있음도 매우 흥미롭다.

한편, 퇴식재의 각 경물들은 형이하학적 즐거움을 위한 장소성 표현을 뛰어넘어 동천세계적 관념이 개입된 팔채지경색의 짜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의 우주관이 함축된 형이상학적 선경세계의 구현임을 유추하게 된다. 즉, 소표제와 詩語의 경관 어휘소를 추적해 볼 때 퇴식재를 대표경관[元景]으로 설정하여, 영천동의 동천세계와 신선경[洞景] 유상, 척서정의 피서처 은일경관[淸景], 山水流와 心流가 어우러진 독락원의 [明景] 향유, 연목당에서 원경을 차경하는 [眞景]의 향유 그리고 연의지에서 미래를 희원하는 [始景] 유상, 녹헌원에서 격물치지하며 자연을 완상하는 심상경관[靈景]의 향유, 인생의 여정 속에 불로장생을 희원하는 대호석의 [玄景] 등 하늘과 땅과 사람의 속성을 소우주공간인 원유속에 담아내면서 삼라만상에 대한 대응과 조화원리를 팔경 즉, [팔채지경색]으로 투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이규보의 퇴식재 관련 고을

시 '기상서의 입당에서 옛사람의 운을 차하다'(1권)에서는 林塘, 池, 洞天과 仙境, 죽순, 원앙, 앵무 등이 등장하고, '기평장의 계연에 초청받은 것을 사려하는 계'(27권)에서는 유상곡수연, 풍류, 泉石에서 소요하는 취미, 괴석, 연못, 채색오리, 우리안의 과란새, 중앙절과 상사절 수계 등 정원 소재는 물론 향유 문화가 다채롭게 언급되고 있다.

'기상서의 林塘에서 옛사람의 운을 차하다'

(동국이상국집 1권, 한국고전번역원)

오래오래 살 만한 터 골라서 / 占斷千年地
 새로 깨끗한 동천 선경처 이룩했네 / 新開一洞仙
 연못물은 흰 비단 퍼 놓은 듯하고 / 池淸鋪淨練
 죽순은 채찍처럼 미친 듯이 솟아나네 / 筍迸走狂鞭
 앵무는 등우리 엿보면서 재잘거리고 / 鸚鵡窺籠語
 원앙은 언덕을 베고 잠을 자네 / 鴛鴦枕岸眠
 이 뜨거운 석 달 여름철에도 / 炎光九十日
 어느 날인들 가을과 같지 않을까 / 何日不秋天

'기평장의 계연에 초청받은 것을 사려하는 계'

(동국이상국집 27권, 한국고전번역원)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계절에 유상곡수하는 잔치를 베푸는데, <중략> 부귀한 가문에서 나셨고 관직은 銓衡을 도맡으셨는데, 將相의 자격을 兼有하여 가문의 번성이 한없고, 풍류가 넘치어 泉石에 소요하는 취미를 붙이셨네. 衡山·霍山처럼 기이한 봉우리를 깎아 세우고, 江淮를 축소한 양 연못을 파서, 채색 오리들이 푸른 물결에 떼다 잠졌다 하고, 파란 새가 아로새긴 우리에서 지저귀니, 이런 구경거리는 일찍이 듣고 보지 못했네. 9월 중앙절과 3월 상사절을 당하면, 鄭나라 유풍을 따라 袂褱를 닦되, 蘭亭의 흥룡했던 모임을 사모하여 특별히 아름다운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하략>

<기상서퇴식재팔영>을 중심으로 퇴식재 관련 10여편의 시문을 별도로 추적하여 원유에 대한 명칭, 시설, 조정 및 경관처리 기법, 향유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퇴식재 원유 관련 詩語에서 추출되는 조경기법 및 문화경관

구분	조경 및 문화경관 요소	비고
정원명	①林泉, ②園(樂園, 名園), ③園圃, ④林塘	園林
시설명	①퇴식재, ②척서정, ③연목당, ④녹헌원	齋, 堂, 軒, 亭
조경소재	①石竇, ②井, ③泉, ④竹, ⑤楊, ⑥鳥, ⑦曲池 ⑧鴛鴦, ⑨大湖石, ⑩萬樹, ⑪기화이목, ⑫진금기수(채색오리, 과란새, 공작, 앵무, 원숭이 등), ⑬가산	大湖石(太湖石)
조경 및 경관기법	①臺와 館, ②봉래·영주의 동산, ③두어 그루 서늘한 대나무, ④세 송이 모란꽃과 아홉 송이 창포꽃, ⑤푸른 바위 밑 靈泉, ⑥푸른 소나무 松澗, ⑦유상곡수거, ⑧연못에 핀 연꽃, ⑨난간에 닿는 버드나무, ⑩금색 새 우리(노란 부리, 푸른 털 새의 지저귀), ⑪단 배나무와 남색 오얏나무, ⑫기화이목의 군식과 기화이초(신기한 꽃과 이상한 풀들), ⑬기암괴석을 줄을 지어 배석, ⑭누각, ⑮내려다 볼 수 있는 푸른 우물, ⑯池塘春草, ⑰曲池, ⑱석가산, ⑲靑山 取景	삼신산(봉래, 영주), 강호의 아취(江湖景), 借景기법(仰借, 俯借, 遠借, 隣借)의 반영
향유문화	①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臺와 館, ②수계 및 청명한날 소나무 숲 아래서 유상곡수연회, ③거문고 소리의 향유, ④풍류가 넘치어 泉石에 소요하는 취미(逍遙遊의 취락), ⑤淸遊會, ⑥숲속 바람소리 등 淸風霽月の 유흥상경, ⑦靑山 取景, ⑧팔영(퇴식재, 영천동, 척서정, 독락원, 연목당, 연의지, 녹헌원, 대호석)의 景點에 대한 詩會, ⑨팔진미와 주연회, ⑩격물치지와 수심양성의 은유, ⑪동천과 선경처(洞仙)에서 미래를 희원	流觴曲水池, 八詠(또는 八景)의 題詠, 유흥상경하는 풍류문화, 洞天과 신선경향유(神仙之境)

IV. 결론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기홍수의 저택 퇴식재를 대상으로 이규보가 읊은 ‘기상서퇴식재팔영’을 중심으로 관련 시문 10여 편을 분석하여 고려 중기 상류 계층이 경영한 원유 문화경관의 특징과 향유 양상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식재팔영’의 제영자 이규보와 경물의 소표제를 제시한 기홍수는 퇴식재 원유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8개 경물을 시문의 관념적 세계와 결합시키고 있음을 볼 때 ‘팔경문화’의 대중적 향유개념을 사적 향유개념으로 축약, 재생산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인물이자 韓國化에 앞장 선 선각자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퇴식재에는 재당헌정(퇴식재, 연목당, 녹균헌, 적서정 등)이 오처에 자리하고, 石竇, 井, 泉, 澗, 榻, 유상곡수연을 즐길 수 있는 曲池, 大湖石, 假山 등의 무기소재 그리고 竹, 萬樹 등 기화이목과 채색오리, 공작, 앵무, 원앙, 원숭이와 같은 진금기수 등의 유기소재가 도입되는 등 원유적 속성이 표출되는바, 기홍수의 작정활동 및 원림을 가꾸는 취미가 다채로웠음을 추적할 수 있다.

셋째, 퇴식재 원유는 음양의 접합(棟+園)과도 같은 중용지처(1영 퇴식재와 2영 영천동, 3영 적서정과 4영 독락원, 5영 연목당과 6영 연의지, 7영 녹균헌과 8영 대호석)의 공간구성체계를 보여준다. 즉, 퇴식재라고 하는 스토리-보드에 ① 洞天, 仙境의 이상세계를 구축하여 ② 山水流와 心流가 어우러진 풍류와 소요유의 경지를 향유하고, ③ 생명사상이 깃든 미래를 회원하며 ④ 道法自然을 통하여 자연에 몰입하는 스토리텔링의 생성-풍요-초월-회귀와 같은 인생체험 경로의 짜임을 유추케 한다.

넷째, 소우주공간인 퇴식재 원유의 여덟가지 경물요소는 팔채지경색의 경관미를 향유하는 경관구성 짜임을 함의하고 있다. 즉, 元景(퇴식재), 洞景(영천동), 淸景(적서정), 明景(독락원), 眞景(연목당), 始景(연의지), 靈景(녹균헌), 玄景(대호석) 등 문화경관 요소들은 개별적 상징성을 정체성 있게 보여준다.

다섯째, 불로장생과 淸風露月을 염원하는 神仙之境, 안분지족하며 수심양성하는 思惟處, 松澗에서 계육하며 노니는 유상곡수연회, 가무를 즐길 수 있는 臺와 館의 풍류, 泉石에서 淸遊하며 소요유를 향유하는 ‘遊와 息 그리고 樂’의 老莊的 풍류문화 속성이 원유미학 속이 내재되어 있다.

여섯째, 퇴식재는 실존경관인 용수산을 遠借 및 仰借하고 영천동과 연의지를 俯景 및 隣景하며, 연목당과 녹균헌에서는 意境을 통해 이상향적 심상경관을 은유하는 등 실존과 이상향이 결합된 원유 속에서 ‘신선풍의 선경 낙토’를 염원하는 형이상학적 문화경관 향유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퇴식재 관련 ① 圖, 書, 畵 등 관련 자료가 ‘동국이상국집’ 이외에 더 이상 발굴되지 않은 점, ② 북한 지역(개성) 입지에 따른 현지조사 불가 등의 사유

로 경관 및 공간구조에 대한 추적이 문헌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다는 점, ③ ‘퇴식재팔영’ 제영자인 이규보가 기홍수의 저택 퇴식재를 방문하여 10여 편의 시문을 지었으며 유상곡수연회에 초청을 받는 등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가치관 내지는 자연관에 이르기까지 원유의 作庭 및 제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동질적 감각이 있었으리라는 추론 하에 분석, 고찰한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주 1) 해문장로는 가지산문의 선승으로 30세가 넘어 승과에 급제하여 大禪師에까지 이르렀다. 고종19년(1232) 전후에 화약사 주지로 있었고 몽고 침략으로 1232년 이후에는 강화도 운문사에서 지냈으며, 이규보는 물론 유충기, 최종선 등의 사대부와 교유하였다. 동국이상국집에 다수의 시와 哀詞가 담겨있다.

인용문헌

1. 강영조, 김경란(1991).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9(2): 27-36.
2. 권석환, 김동욱, 김병국, 노재현, 손우규, 심우영, 안장리, 여기현, 이민홍, 이상주, 이석해, 이행렬, 정유선(2004). 한중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서울: 이화문화사. p.2.
3. 김동욱(2004). 고려후기의 삼척죽서루팔영. 서울: 이화문화사. pp.261-262.
4. 김영모(2007). 시 짓기와 원림 조영론, 오늘 옛 경관을 다시 읽다. 경기: 도서출판 조경, pp.247-248.
5. 노재현(2009). 소상팔경, 전통경관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건축구조. 한국조경학회지. 37(1): 100-119.
6. 노재현, 신상섭(2007). 팔경 구조분석을 통해 본 전통문화경관 조망권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1): 11-23.
7. 노재현, 오현경, 한상엽(2009). ‘비해당사십팔영’ 출현식물이 조선시대 원에 관련서에 미친 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2): 1-12.
8.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1982). 역주 고려사.
9. 민경현(1991). 한국정원문화: 시원과 변천론. 서울: 도서출판 예경.
10. 민족문화추진회(1969). 동문선 6권, pp.214-216.
11. 민족문화추진회(1979). 국역 동국이상국집.
12. 박경룡(2009). 살곳이별[箭串坪]에 대한 고찰.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사회 사료조사자료.
13. 박선규(1998). 산수화와 그 정신. 서울: 도서출판 신원, pp.11-44.
14. 박원호(2004). 16세기 이전 원림문학의 공간특성연구. 개신이문연구. 21: 81-108.
15. 백윤수(2005). 원림론에 미친 화론의 영향. 미학. 41: 13.
16. 신상섭, 노재현(1998). 경관정체성 향상을 위한 전주팔경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26(4): 25-35.
17. 심경호(1995).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8: 78.
18. 아세아문화사(1972). 고려사 영인본.
19. 안장리(2002). 한국의 팔경문학. 서울: 집문사. pp.43-282.
20. 안휘준(1988). 한국회화의 전통. 서울: 문예출판사. p.166.
21. 윤국병(1978). 동양조경사. 서울: 일조각.
22. 윤영환(1985). 고려시대 정원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4(1): 71-78.
23. 윤영환(1987). 高麗時代의 庭園構造와 配植에 關한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 윤영환(2009). 고려시대 석가산의 시원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10-18.
25. 이규보(1241 이후). 동국이상국집 총간.
26. 이한길(2009). 김구기의 경포대 한시연구, 경포대와 경포호의 문화 산책. 서울: 새미. pp.90-91.
27. 장정룡(2002). 한송정곡 연구. 강원도민속연구. p.189.
28. 전경원(2006). 소상팔경시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맥락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정동오(1986). 한국의 정원. 대우학술총서. 서울: 민음사.
30. 정민(2007).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

- 를. pp.221-251.
31.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32. 진상철, 이원호(2009). 동양조경문화사 고려시대 편. 서울: 대가출판사. pp.113-118.
33. 최기수(2004). 자연에서 얻는 삶과 지혜, 팔경과 구곡.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4): 133-138.
34. 최진원(2004). 팔경과 구곡; 한증팔경구곡과 산수문화. 서울: 이희출판사. p.9.
35. 한국고전번역원.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번역본.
36. 한국전통조경학회(2009). 동양조경문화사. 서울: 대가출판사. pp.113-118.
37.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2955a>
38.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5d1168a>
39.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
40. <http://osj1952.com.ne.kr/interpretation/bgomunjinbohojip/dl/120.htm>
41. <http://db.itkc.or.kr>

원고접수: 2010년 4월 22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6월 21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